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일본 지진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

- 리비아, 사우디, 바레인 등 중동국가의 정치불안이 계속되고, 유럽 은행들의 대규모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진과 원전사고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함.
 - 모건스텐리는 일본 지진 이후 1/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4.5%에서 2.9%로 하향 조정하였으며,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0.5%p 하향 조정한 3.8%로 전망함.
 -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으로 올 들어 11% 가량 상승한 국제유가는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원유수입을 확대할 경우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- 월드뱅크는 본격적인 복구작업 시작과 함께 일본 경제가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, 일본의 해외투자 여력 감소는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일본 지진으로 인한 충격은 글로벌 공급라인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며,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라인 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
 - 일본의 영향력이 큰 전자산업의 경우 반도체 등에서는 일본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핵심부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부품업체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기업의 어려움으로 확산될 수 있음.
 - 애플사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플래쉬 메모리나 LCD모니터 등의 공급문제에 주목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이크로폰, 배터리, 센서 등 값은 저렴하면서도 대체할만한 생산자가 없는 특화된 부품들이라고 지적함.
 - 이번 일본 지진과 원전사고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라인 리스크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, 공급라인 관리의 주안점이 재고비용 축소에서 생산지연 리스크 축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.

(New York Times 등, 3/22)